

사이버다임의 사회공헌활동

나눔 발명의 연장!

기부를 결정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린 기업이 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지식관리시스템(KMS), 6시그마 포탈시스템 등 다양한 조직의 업무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현해 온 사이버다임이 바로 그 주인공. 남을 돕는 것이 꺼려져서가 아니다. 더 잘 돕기 위해서 1년을 심사숙고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결정에 따라 직원들이 반강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이 아니라 모두의 합의를 거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나눔 모형을 만들겠다는 사이버다임의 마음가짐의 준비기간이 바로 1년이었다.

사이버다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천'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 직원들이 매년 급여 우수리돈을 모아 기부하고, 기업은 동일한 액수를 매칭하여 말 그대로 '두 배의 나눔'을 실천한 것이 올해로 벌써 4년째를 맞고 있다. 오랜 기간 직원 대상 내부 설문조사 등 수 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듭하여 마음을 모은 나눔이었기에 모두들 꾸준히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 특성상 직원들은 늘 더 즐겁고 따뜻한 나눔 발명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작은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어 적절히 진행되고 있으며, 직원들은 더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 직원들이 사내 '자율냉장고'를 이용하고 낸 음료수 값 모으기에서부터, 각자 안 쓰는 물건들을 모아 직접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 참여하기, 그리고 대표이사의 강연료까지 모두 모으고 모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기 등 다양한 나눔 발명이 그 결과물들이다. 이렇게 반짝이는 나눔 발명을 통해 모인 기부금은 모두 아름다운 재단의

솔기금에 보태지고 있다. 이 솔기금은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 계층의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에 알토란처럼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다임에서는 전사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지난 2006년부터 신입사원들의 교육의 일부로 '아름다운 가게 답십리 그물코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실제 사이버다임은 그 동안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봉사활동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었는데, 신입사원에게만 해당되는 프로그램에도 많은 사원들이 자발적 참여를 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또한 이 봉사에 참여한 신입사원들은 사회에 처음 나와 소중한 경험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나눔 활동으로 꾸준하게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사이버다임 현석진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회사가 커나가는 만큼 사회 환원과 기여 부분을 늘리고 업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참여하는 이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며 "직원들의 진심 어린 나눔 활동이 계속되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한 해 한 해 꾸준한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한다.

나눔은 시작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작하면 왜 더 일찍 나누지 못했나 하며 후회할 만큼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온다.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시작하는 나눔과 돌아온 큰 기쁨을 사이버다임에서 엿 볼 수 있었다.